지역재투자 지방은행 중 1위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전북은행,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최우수 등급… 지역밀착형 금융의 모범사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2025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또 한 번 종합 최우수 등급으로 지방은행 중 총점 1위를 기록하며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지역과의 상생금융 실천과 소상공인 맞춤 금융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앞장서며 지역기반 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확대해 나간 결과이다.

△지역재투자 평가 최우수 등급, 지역은행으로서의 진정성 증명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제1금융권 2곳, 저축은행 2곳 등에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전북은행은 평가 첫 해인 2020년부터 꾸준히 최우수 등급을 받아왔으며, 올해도 주 영업권인 전북지역을 비롯해 종합결과 최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평가결과만 발표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에 대해 표창을 수여키로 하면서 전북은행은 제1금융권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는 전체 은행권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구유출로 인한 경제인구 감소 및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에서 전북은행이 전북 외 수도권과 비대면 중심의 수익구조에도 불구, 본점 소재지인 전북에 더 높은 자금공급 실적과 금융인프라를 갖추며 지역은행으로서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시중은행을 앞서는 업계 최고수준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정책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통틀어 전북은행이 단연 압도적이다. 지난해 7524억원 지원으로 전체 은행권에서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6,712억원으로 업계 최고수준으로 지원중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적극 취급하면서 지난해 2,682건에 687억원을 신규지원하며 취급 실적 1위를 달성했고, 올해도 6월말 기준 3,037건에 781억원을 신규 지원했다.

△'전북중심 금융그룹'으로 정체성 강화하며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

전북은행은 전북에 본점을 둔 유일한 은행으로서 JB금융지주 본사를 전주에 두고 대구에 있던 JB우리캐피탈 본사와 JB자산운용 본사까지 전주로 이전하며 자금과 세수를 지역에 환류시키는 모범적 사례를 실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JB금융지주 자회사 중 광주은행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 납부액은 908억원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정읍연수원 완공 이후 데이터센터를 전주시에 건립하기로 하는 등 주요 기관들을 전북지역으로 집중 배치하며 '지역밀착형 금융'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총 538억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데이터센터는 금융시스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인프라로 IT인력 유입과 디지털 금융 기술의 지역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센터가 전북지역에 자리 잡게 되면 지역 내 디지털 금융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금융 인프라 강화는 물론,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축협은 지난 27일 조산동 통합시설 예정 부지에서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남원지역 축산업 미래 향한 첫 삽

남원축협 조산동 통합시설 기공식 · 안전기원제 개최

남원축협은 지난 27일 조산동 통합시설 예정 부지에서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축협 임원 및 조합원, 전임조합장과 남원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기공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했다.

한경석 조합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짓는 자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착공하는 통합시설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조합원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종합 생활·경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최경식 시장은 축사를 통해 "남원축협 통합시설 기공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우리 남원 축산농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안전한 공사와 성공적인 준공을 기원했다.

/오상근 기자

전은, '부산외국인금융센터' 개점… 외국인 영업 활성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외국인 영업활성화를 위한 '부산외국인금융센터'를 개점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점한 부산외국인금융센터는 국내 주요 외국인 거주 지역인 부산에서도 김해국제공항과 인접한 사상역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만큼 외국인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평일 은행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주말에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 눈높이에 맞춘 최적화된 금융 상담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대출, 예금, 체크카드, 해외송금, 사고신고 등 외국인 고객을 위한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를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직원 배치를 통한 맞춤형 금융 상담 지원 및 국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금융 고객의 등반자로서 부산 내 거점은행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국내거주 외국인 250만명이 육박하는 시대에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 2025년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 4.08% 기록

적립금 1269조원… 전년 말 대비 56조원 증가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4%대의 기금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5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269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56조 원 증가했고, 수익률은 4.08%(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수익금은 50조 원이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누적수익금은 787.5조 원이다.

미국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따른 약달러로 인해 해외자산의 원화기준 운용수익률이 다소 부진했지만, 국내주식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며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31.34%, 국내채권 2.34%, 해외주식 1.03%, 대체투자 -2.86%, 해외채권 -5.13%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국내증시는 신정부 정책 기대와 저평가된 주가 매력에 따른 양호한 수급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기금 전체 운용수익률을 견인했다. 해외주식은 연초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우려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점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수익률이 양으로 전환했다.

참고로 국내 주식시장(코스피) 전년 말 대비 +28.01%이며, 글로벌 주식시장(MSCI ACWI ex-Korea, 달러 기준) 전년말 대비 +9.59%, 원·달러 환율 전년말 대비 -7.73%이다.

국내 및 해외채권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채권의 경우 금리하락에 따른 평가이익의 영향으로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음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오상근 기자

도로공사 전북, 전주공고와 협약… 지역 인재 교육지원 · 건설 현장 견학 정례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학생들 이 취업 지원·건설 현장 체험 희망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27일, 전주공업고등학교와 학생들의 취업 지원과 현장 체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한 전주공고 학생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취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서 추진됐다.

이러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공기업 직무 체험과 건설공사 현장 견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직무 체험과 건설현장 견학을 제공하고, 전주공고는 학생 선발과 참여 지원을 맡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신입사원-학생 1:1 멘토링과 새만금전주고속도로 특수교량·장대터널 등 현장 견학을 실시하며, 이를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완주소방서와 체결한 '재난대응 장비 공동활용 협약'에 이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참여 기관과의 협력 확대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우수 학생들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TP, 전북형 재난대응 생태계 구축

'2025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포럼' 개최

전북테크노파크는 2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기후위기 시대, 침수 등 재난대응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전북 지역특화 AI 기술·정책 도입 및 확산 방안'을 주제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드론·위성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모델이 국가 재난안전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북형 재난안전 생태계 조성과 지역기반 기술·정책 연계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 및 산하 시·군 공무원, 한국방재학회 등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요 발표에는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Rain X Series'(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재웅 박사), △'AI 기법을 활용한 산사태 위험성 평가'(대전대학교 윤형구 교수), △'드론 활용 AI 기술의 적용 현황과 재난·방재 분야 확대'((주)포스코이앤씨 전진택 그룹장), △'전북 침수안전진흥시설을 활용한

침수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전략',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전북테크노파크 유지연 팀장) 등 스마트 기술 실증기반의 최신 재난 대응 전략이 소개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원광대학교 지역혁신본부 이동기 본부장을 좌장으로, 이영춘(전북TP), 최종문(포스코이앤씨), 조재웅(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윤형구(대전대), 배성훈(LX공간정보연구원), 유정동(전북대) 등 국내 재난안전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술-정책-산업이 연계된 재난 대응 전략과 글로벌 확산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오상근기자